우리가정의 주인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9:4-6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으며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려야 했고, 물이 없어 극심한 갈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아섰을 때,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_출애굽기 19:4"

마치 독수리가 위험에 처한 연약한 자기의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감싸고 등에 업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네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이 때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와 예기치 못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추석명절,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34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대교회
Changdae Presbyterian Church
Blessing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1Chronicles 16:34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시교독 ---------- 105번 감사절(1) ---------- **다같이**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가 족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가 족 :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인도자 :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가 족 :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도자 :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가 족 :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자 :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가 족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경말씀 ---------- 출애굽기 19:4-6 ---------- **설교자**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설 교 ----------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 **설교자**

기 도 ---------- **설교자**

찬 송 ----------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같이**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 기 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